

석사 학위논문

티타임 청공도

— 청공도(淸供圖)를 활용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김 유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관식

티타임 청공도

-청공도(淸供圖)를 활용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Utensils and Antiquities for Teatime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김 유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관식

티타임 청공도

—청공도(淸供圖)를 활용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Utensils and Antiquities for Teatime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김 유 진

김유진의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 선 태 (인)

심 사 위 원 강 관 식 (인)

심 사 위 원 김 정 현 (인)

국 문 초 록

티타임 청공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 양 화 와 진 채 화 전 공
김 유 진

우리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를 탐구하다 ‘물’에 주목하게 되었다. 물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어우러져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물은 형태도, 목적도 없이 흐르지만 무한히 순환하며 천공과 바다를 이루고 생명이 있는 삶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 물의 이러한 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 ‘나’를 이루게 되는 모습과 같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물을 주제로 한 작업을 시도해 보고 싶어졌다.

수많은 물의 모습 중에서도 ‘차’를 주제로 한 작업을 하고자 한다. 주로 찻자리, 즉 ‘티타임’의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 물이 간접적인 것이 아닌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의식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연구작은 전공분야 중 한 장르인 ‘청공도(청상도, 청완도)’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청공도의 발원이 되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청공도에서 발전된 ‘문방청공도, 문방도, 기명절지도’의 내용과 중심 소재 기물들간의 도상적 차이점과 의미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인의 작업에 반영하여 작업해보고자 한다.

청공도는 명 말 사대부들의 문인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문인들이 수집하고 완상하던 여러 기물을 화제로 한 그림이다. 서재의 풍경과 함께 완상하는 기물을 담아 내던 것에서 소재가 분화되며 그려내는 기물과 형식에 따라 문방청공도, 문방도, 기명절지도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청공도

는 그려진 기물이 각기 의미하는 바는 다르지만 이를 통해 해당 기물을 가진 소유자의 높은 안목과 문화 수준, 학식 등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점과 청공품들을 통한 심신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다.

청공도에 그려진 기물들은 수집벽과 탐욕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본래 문인화에서 온 것으로 문인들이 청완품들을 수집하여 완상하는 목적에는 그 기물을 통해 정신적인 수양을 하는 데 있다. 본인은 이 부분에 주목하여 청공도를 감상하고, 창작작업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청공도의 다양한 형태인 문방도와 기명절지도 작품들을 보며 다양한 기물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배치하는가에 따라 관람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문인들의 완상물처럼 목적의미를 담은 기물들을 배치하여 여러 순간들이 모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으며, 따라서 작은 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주요어】 청공도, 문방청완, 문방도, 기명절지도, 다회(茶會).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동기	1
1.2 연구목적	2
1.3 연구방법	2
II. 문인문화와 청공도	4
2.1 명말 문인들의 청완문화와 청공도	4
2.2 조선시대 청공도	7
2.3 조선시대 문방도와 기명절지도	10
III. 청공도를 기반으로 한 창작작업	15
3.1 작품 소재와 주제 전개 방식	15
3.2 차-입문(入門)	16
3.3 차-맛(味)	20
3.4 차-잠기다(潛)	27
IV. 결 론	32
참 고 문 헌	33
ABSTRACT	34

그 림 목 차

[도1] 손극홍, <운창청완도(雲窓淸玩圖)>, 1593, 지본채색, 20.5×318.5cm, 수도박물관	6
[도2] 손극홍, <문창청공도(文窓淸供圖)>, 1593, 지본채색, 21×579.8cm, 북 경 고궁박물관	6
[도3] 강세황, <청공도(淸供圖)>, 조선 18세기, 견본담채, 23.3×39.5cm, 선 문대박물관	8
[도4] 정선, <독서여가도(讀書餘暇圖)>, 조선 18세기, 견본담채, 17×21.4cm , 간송미술관	8
[도5] 김홍도,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 조선 18세기, 지본담채, 27.9×37cm, 개인소장	9
[도6] 작가 미상, <책가도병풍>, 19세기-20세기 초, 견본채색, 206.5×45.3cm(×10), 국립고궁박물관	11
[도7] 전 낭세녕, <다보각경>, 18세기, 지본담채, 103×222.8cm, 플로리다 제임스 모리세이 소장	11
[도8] 이형록, <책가도>, 19세기, 지본채색, 153×352cm, 국립중앙박물관 12	
[도9] 작가 미상, <책가도>, 19세기, 견본채색, 198.8×393cm, 국립중앙박물 관	12
[도10] 장승업, <기명절지도>, 19세기, 견본채색, 38.3×233cm, 국립중앙박 물관	15
[도11] <Collect-Teacup>, 2019, 견본채색, 117×161cm(×2)	17
[도12] <Collect-Infuser>, 2019, 견본채색, 61.5×41.8cm	18
[도13] <다가도(茶架圖)>, 2012, 지본채색, 91×116.7cm	19
[도14] <티타임>, 2015, 견본채색, 35×42cm(×2)	19
[도15] <가비-1931년의 봄>, 2014, 견본채색, 73×54cm	21
[도16] <가비-책거리>, 2014, 견본채색, 73×56cm	22
[도17] <여름>, 2015, 견본채색, 70×58cm	22

[도18]	<복옥(馥郁)>, 2017, 견본채색, 44×36cm	23
[도19]	<다반향초(茶半香初)>, 2018, 견본채색, 26×35.5cm	24
[도20]	<봄비>, 2020, 견본채색, 33×23.5cm	25
[도21]	<선(仙)>, 2016, 견본채색, 25×17.6cm	26
[도22]	<티타임 I>, 2016, 견본채색, 17.6×25cm	27
[도23]	<담(潭)>, 2019, 견본채색 33.4×24.2cm	27
[도24]	<테라스Ⅱ>, 2019, 견본채색, 30.5×24.5cm	28
[도25]	<테라스Ⅲ>, 2020, 견본채색, 24.5×33cm	29
[도26]	<여행>, 2019, 견본채색, 34×41.8cm	30
[도27]	<오후 3시의 초상>, 2019, 견본채색, 76.5×48cm	30

I. 서론

1.1 연구동기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 “소확행(小確幸)”,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단어가 이제 낯설지 않다. 세세한 뜻은 다를지라도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기보다는 눈앞의 스트레스를 먼저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의식주를 모두 갖춘 사람들이 ‘취미’를 찾아다녔다면, 요즘은 반대로 고급 취미를 먼저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부유한 어른의 놀이로 여겨졌던 골프가 크게 유행했던 것이 대표적 예이다.

본인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현실의 행복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다. 당장의 행복이 미래를 위한 현재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본인의 주된 힐링법은 좋아하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그와 관련된 물건들을 모아두는 일종의 ‘수집’이다.

어릴 적부터 가족들과 식후마다 가졌던 티타임의 기억은 성인이 된 지금도 습관적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순간마다 의식처럼 행해진다. 좋은 차 한 잔은 본인의 하루 틈새를 메워주는 소중한 존재다. 특히 작업 직전에 마시는 차는 긴장된 정신을 풀어주고 전체 과정을 살펴보는 여유를 만들어 준다. 종종 마음이 가라앉은 날에는 좋아하는 카페에 들러 어린 날 가족과의 추억이 깃든 차 한 잔으로 위안을 얻기도 한다.

가족과 떨어져 생활한 지 십여 년이 된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티타임을 가질 시간이 부족하다. 티타임마다 가족끼리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는 혼자 보내는 시간에서는 주로 차맛이나 주변 분위기를 감상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때문에 종종 찾아오는 찻자리는 최대한 잘 갖추어 맞이하려고 하는 편이다. 허례허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본인에게는 힐링의 부분이다. 준비과정의 대개는 물론 ‘수집’이다. 종류별 차, 다구, 관련

도서, 그 외에 개인적 티타임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 일체가 해당된다.

전공분야에서 연구를 위한 소재를 찾던 중 ‘청공도(淸供圖)’를 알게 되었다. 청공도는 수집한 청공품들을 통해 힐링을 하던 조상들의 문화를 그려낸 것으로, 본인의 일상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티타임을 소재로 하는 연구에 적합한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작업은 티타임의 모습과 그 시간 동안 일어나는 감상을 그려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차는 상황에 따라 맛도 느낌도 달라진다. 차를 마시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차향과 맛을 즐기는 순간일 수도 있고, 그저 단순히 시간을 메우는 틈이거나, 반대로 깊은 명상을 하는 시간, 또는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티타임이 이루어지고 사라진다.

모든 사람들이 차 한잔에 감상을 얻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미없이 지나쳐지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작업을 통해서 감상자들이 각자 흘려보냈던 수많은 티타임처럼 무던히 지나쳤던 삶에서 작게나마 빛나던 순간을 기억하며 작은 위안을 얻길 바란다.

이를 표현하기 위한 소재로 ‘찾잔’과 ‘차’를 주요 소재로 택하였는데, 주제 부인 찻물의 질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연구하여보고 앞으로의 작업에서 재료의 활용을 넓혀보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연구작은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연구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선정한 ‘청공도’의 형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그 내용을 확장하여 표현하는 것을 시도할 예정이다.

먼저 청공도의 발생 배경인 중국 문인들의 문방청완 취미문화에 대하여 조사해보고, 우리나라에 전래된 청공도가 어떠한 형식으로 그려지고 발전했는

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청공도는 그려진 기물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로 나누어 조사하고 본인의 작업에 반영하고자 한다.

작업은 청공도 중에서 ‘문방청공도, 문방도, 기명절지도’의 세 가지 형식을 골고루 적용하여 진행하고, 티타임의 감상을 주제로 한 창작작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자 한다.

모든 작업은 비단을 바탕재로 하는 전통 진채화 형식으로 진행하고, 시대별 청공도의 형식을 다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려지는 사물들의 표현 기법은 진채화의 전성기였던 조선 17~18세기 도화서 화원들의 기물 표현 법으로 한정하여 진행할 것이다. 또한 티타임을 주제로 한 몇 가지 작업에서 주요 주제부인 ‘찾물’의 표현을 위해 서양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레진’을 사용하여 비단을 바탕으로 하는 그림에서 새로운 채색재료를 시도 해보고자 한다.

Ⅱ. 문인문화와 청공도

2.1 명말 문인들의 청완문화와 청공도

본 연구작업을 시작하면서 먼저 청공도가 시작된 배경과 어떠한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본인의 연구목적과 일치하는지 이론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청공도는 청완도(淸玩圖)라고도 하며, 문인들이 수집하여 서재에 두고 감상하던 ‘완상기물’들을 주 소재로 한 그림이다. 청공은 ‘서재에 놓인 아취 있는 물건’ 또는 ‘완상’을 뜻하는 ‘청완(淸玩)’이 ‘청공(淸供)’과 의미를 같이하게 되면서 명말에 주로 사용된 용어였다.

청공도의 ‘供’은 종교의식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명절과 제사 등에 청향(淸香), 선화(鮮花), 청소(淸蔬)¹⁾ 등을 공양하던 것을 가리키는데, 문인화가 시작된 송대에 절령화(節令花) 풍습과 함께 세조청공(歲朝淸供), 단오청공(端午淸供)²⁾ 등이 문인문화로 정착되고 그러한 청공품(淸供品)을 담은 고동기가 박고(博古)취미로 감상, 연구되면서 청공은 점차 청완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었다.³⁾

청공도의 등장 배경이 된 것은 문인들의 문방청완 취미였다. 문인들의 완물취미는 당대(唐, 618-907)부터 시작되어 북송대(北宋, 960-1127)에는 문인문화로 정착하였으며 명말(明, 1368-1644) 크게 성행했다. 16세기 전반까지 문인들은 청완취미를 ‘완물상지(玩物喪志:물 질에 집착하여 본인을 잃는

1) 청향(淸香), 선화(鮮花), 청소(淸蔬) : 제사상에 향, 꽃, 나물(푸성귀 蔬)를 올리는 것.

2) 절령화(節令花) 풍습, 세조청공(歲朝淸供), 단오청공(端午淸供): 송대에 새해 첫날이나 단오날과 같은 명절에 각기 알맞은 꽃을 꽃아 감상하였는데, 궁정에서는 귀하게 여긴 화기인 고동기에 꽃을 꽃아 감상하던 풍습이 있었다. 재인용, 이경화, (2011). 「姜世晷의 <淸供圖>와 文房淸玩」, 『미술사학연구 제271호, p.223 각주 5)』.

3) 유순영, (2014), 「孫克弘의 淸玩圖 : 명 말기 취미와 물질의 세계」, 『미술사학보 제 42집』, pp.149-150.

것)’로 경계하며 절제해왔으나 이러한 인식이 16세기 후반에는 점차 변화하며 문방청완은 문인의 기본적인 교양이며, ‘어떠한 취미에 몰두하는 행위(=癖)’ 자체를 가지 있는 것으로 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청완 취향에 따라 대형 장서가, 서화 수장가, 차 애호가 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문인들은 자신들의 서재나 정원에서 향을 피우고 차를 마시며, 시문(詩文)과 서화(書畵)를 서로 나누고, 고동기·서책·분재·수석 등을 수집하며 완호(翫好)하는 소비생활에 탐닉했다.

특히 명 말에는 상품경제의 발달로 사회 전반에 소비 풍조가 만연했다. 이러한 사치풍조는 당시 문인들의 완상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문인들의 소비의 폭을 넓혔고, 이에 따라 물건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력은 그 자체로 상품적인 가치가 되며 문방청완 문화를 지향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 서적이 16세기 중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⁴⁾

이러한 문방청완의 취미가 시각화된 것이 ‘청공도’였다. 청공, 청완소품의 소재는 산림원림(山林園林:산과 정원), 풍화설월(風花雪月:아름다운 경치와 정취), 누대관각(樓臺館閣:높은 정자와 관청), 선식주다(膳食酒茶:음식과 술, 차), 문방사보(文房四寶:문방사우), 초목충어(草木蟲魚:화초와 곤충, 어해류), 박변유희(博奕遊戲:해박함, 놀이), 기물진완(器物珍玩:귀한 물건을 완상하는 것) 등 다양한데, 청공도에는 이러한 소품들을 수집, 완상하는 모습들을 담아 내어 문인으로서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심취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 중, 명 말기 활동한 문인화가 손극홍(孫克弘, 1533-1611)의 《문창청공도》와 《운창청완도》에서는 실제 기물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손극홍의 작품은 당시 유행한 청공도 형식은 아니지만 명말 문인문화의 중심에 속해 있었으며 실제 소유하고 완상한 물건을 그려냈기 때문에 살펴볼 가치가 충분하다.(도1, 도2)

4) 유순영, 앞의 논문, p.167.



[도1] 손극홍, <운창청완도(雲窓淸玩圖)>, 1593, 지본채색, 20.5×318.5cm, 수도박물관



[도2] 손극홍, <문창청공도(文窓淸供圖)>, 1593, 지본채색, 21×579.8cm, 북경 고궁박물관

초기 청공도는 수집한 서화 골동품, 수석, 화훼, 소과, 문방 등의 청완품을 을 모아놓은 전각이나 서재의 풍경을 인물과 함께 담아내는 형식으로 그려졌으나 점차 전체적인 풍경보다는 물건으로 화제가 집중되어 길상 의미를 첨가하여 문방품만 모아놓고 그려내는 문방청공도, 화훼와 그릇이 담긴 기명절지 형식의 세조도 및 박고도로 나뉘어 전개되었고, 청대에 가서는 기명절지도 형식이 보편적인 장르로 자리잡았다.

명말 문인들의 문방청완 문화와 청공도는 우리나라로 전해져, 18세기 후반 조선 문인 사회에 문방청완 수집이라는 주된 취미문화를 성행하게 했고, 청공도도 이에 따라 맞추어 변화해 나갔다.

수집품을 완상하는 행위를 봉양, 봉공하는 의미의 청공과 동등하게 인식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청공도는 본인이 티타임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티타임 행위와 도구들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정신적인 가치를 얻고자 하는 목적과 그 방식이 일치한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청공도를 형식으로 하는 ‘티타임 청공도’로 연구주제를 진행하게 되었고, 중국 명말 문인문화에서 시작된 청공도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래되어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더 알아보고자 한다.

2.2 조선시대 청공도

‘청공’이 불교와 같은 종교의 공양의식에서 온 만큼,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성행했던 고려시대에 용어는 이미 수용되었으나 당시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명말 문인문화가 조선에 전해지면서 청공은 문인들의 문방청완 문화로 받아들여졌다. 명 말기 문인들은 서재에 진열된 문방기물을 ‘문방청공(文房淸供)’으로 부르며 완상하고 봉공하였는데, 이것이 명말 문인들을 동경한 우리나라 문인들에게 이어져 18세기 조선후기 문방청완 문화를 만들어냈고, 마찬가지로 청공도로 그려져 남겨졌다.

조선후기 문인 중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청공도(淸供圖)>를 가장 대표적인 청공도로 볼 수 있다.(도3) 강세황의 청공도는 여의(如意)⁵⁾와 함께 책, 연적과 같은 문방구들을 놓은 서안(書案:책상)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괴석과 매화가 있는 화분을 두고, 아래는 산책을 위한 단장(短杖:짧은 지팡이)을 둔 모습을 담고 있다. 우측 위편에 ‘무한경루 청공지도(無限景樓, 淸供之圖)’라는 화제가 적혀져 있는데, 무한경루는 강세황이 말년 남산에 마련한 집의 이름으로, 기거하며 서화를 제작하거나 문인들과 아회를 열던 장소였다. ‘청공’은 ‘맑음을 갖추다’라는 의미로써 당시 문방구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5) 여의(如意) : 불교에서 법사가 설법,법회할 때 손에 지니는 불구로 ‘뜻대로’의 길상적 의미를 가진 장식용, 감상용 청공품으로 사용되었다.



[도3] 강세황, <청공도(淸供圖)>, 조선 18세기, 견본담채, 23.3×39.5cm, 선문대박물관



[도4] 정선, <독서여가도(讀書餘暇圖)>, 조선 18세기, 견본담채, 17×21.4cm, 간송미술관

용어였다.⁶⁾ 따라서 강세황의 청공도는 ‘서재의 문방 소품들을 그린 그림’인 문방청공도인데, 문방 기물만을 소재로 하고 있으나 실체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무한경루’를 소개한 것으로 수준 높은 문인문화를 즐기는 문인의 공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 외에도 조선 후기 문인 화가였던 겸재 정선(鄭敼, 1676-1759)의 <독서여가도(讀書餘暇圖)>(도4)와 화원이었던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의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도5)도 조선시대 청공도의 대표작들로 이 두 작품도 초기 청공도 양식을 잘 보여준다.

정선은 실경 산수와 함께 청풍계에 위치한 자택을 자주 그려내곤 했는데, <인곡유거도(仁谷幽居圖)>와 <여산초당도(廬山草堂圖)>도 은거하는 문인의 모습을 담아낸 청공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기물보다는 주변 풍경이 더욱 강조된 모습이다. 그러나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에 수록된 <독서여가도>는 청공품들이 주된 소재로 등장한다. 독서를 하던 주인공이 잠시 쉬며 마당의 화분을 감상하는 여가를 갖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화면의 대부분을

6) 이경화, 앞의 논문, p.114.



[도5] 김홍도,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 조선 18세기, 지본담채, 27.9×37cm, 개인소장

차지하는 서재의 모습에서
는 서책과 함께 두루마리,
쫓대, 고동기가 진열된 책
가가 있고, 책가의 문에 수
목 산수까지 걸려있어 당시
문인의 청완품 문화를 잘
보여 준다.

김홍도의 <포의풍류도>에
서는 좀 더 많은 종류의 청
완품들을 볼 수 있다. 18세

기 후반 화원으로 활동한 김홍도는 서재의 풍경과 아회 장면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 <포의풍류도>는 문방과 고동기, 당비파, 파초 잎사귀 등 다양한 청완품에 둘러싸인 선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원편 상단에 ‘종이로 만든 창과 흙벽으로 된 집에 살지만 평생토록 벼슬하지 않고 시가나 읊조리며 살고자 한다(綺窓土壁, 終身布衣, 嘯詠其中)’는 화제가 적혀있어 동경하던 문인적 삶의 모습을 주제로 하였으며, 그것을 청공품을 갖추고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문인의 고상한 삶을 목적으로 하던 문방청완 문화가 18세기 후반부터는 서화고동의 ‘박물관(博物)’적 수집을 중심으로 하는 호사 취미로 변질되면서, 완상자와 그 거취를 그려내던 청공도는 인물과 풍경이 배제되고 문방청완품만으로 연출되어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문방도’와 ‘기명절지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방도는 서재에 놓인 문방만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좀 더 문인적인 그림에 가깝다.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는 이름과 같이 기명과 절지가 함께 그려진 정물화풍 그림으로 중국에서는 당에서 시작되어 송, 원나라 때 본격적으로 그려졌고 청대부터는 독립된 화목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기명절지화’라는

용어 자체는 중국 화재(畫材)목록에는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붙인 명칭이다.⁷⁾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말기부터 기명절지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하였고 장승업을 필두로 안중식, 이도영, 조석진 등 주로 근대 화가들이 즐겨 그렸다.

중국에서 전래된 청공도와 조선의 청공도는 청공품들을 모아놓은 문인의 공간을 그려내었던 초기의 형태는 같지만, 점차 조선 후기로 가면서 ‘문방책가도’나 ‘기명절지도’와 같이 시대적 필요나 배경에 따라 구별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발전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보고 앞으로 진행할 연구작업에 반영하여 현재의 흐름에 맞춘 새로운 청공도를 시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2.3 조선시대 문방도와 기명절지도

2.3.1 문방도 ; 책가도

청공도의 한 종류인 문방도(文房圖)는 청공기물 중 ‘문방(文房)’ 기물을 주된 소재로 하는 그림이다. 명말 문인들의 다양한 청완문화 중에서도 ‘문방청완’ 취미는 서재에서의 문방 청완품의 위치와 기능을 강조하며 조선시대 문인들의 서재문화를 성행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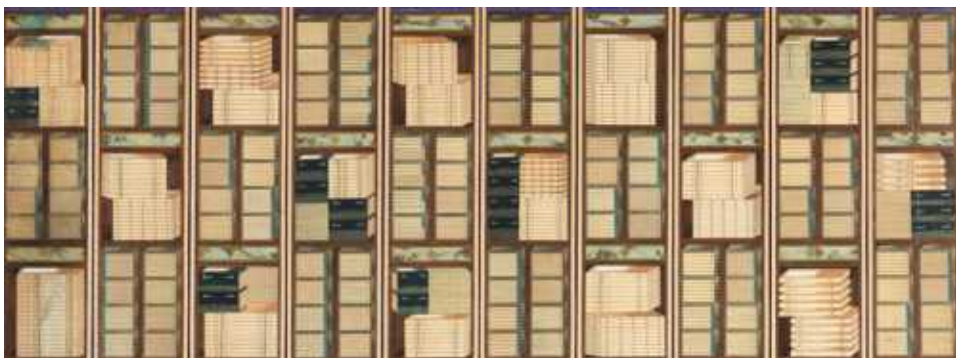
문방에는 지필묵연(紙筆墨硯)의 문방사우를 비롯하여 필상, 필통, 연갑, 묵갑, 인장 등 지필묵연의 보조 도구들과 서, 첩, 향 등 여러 기물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려지고 성행한 청공도는 ‘문방도’일 것이다. 문방도는 조선후기 자비대령화원제에 ‘문방’ 장르로 채택될 정도였으며 궁중화원 시험 기록에서도 문방 소품들을 소재로 제시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정조에 의해 문방 소재 중 서가에 책만 그리는 형태인 ‘책가도’가 창시되었다고도

7) 홍선표, (1987), 「조석진의 『기명절지도』」, 『현대미술관화뉴스』, 44호, p.3.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인지 문방도 중에서도 특히나 책가도가 성행하고 많이 그려졌으므로 책가도에 대한 조사를 좀 더 비중있게 하였다.

책가도(冊架圖) 혹은 책가화(冊架畵)는 책가에 책과 여러 기물들을 그린 정물화풍의 그림으로 영조대 후반인 18세기 중반에 중국에서 책가도의 모체 격인 다보각경을 그린 ‘서가도(書架圖)’가 전래되어 18세기 후반에 이미 경화사족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었고, 18세기 후반 정조가 이를 수용하며 자비대령화원의 녹취재에 ‘문방’이라는 장르를 창시하며 따로이 분류하여 애호하였다.⁸⁾



[도6] 작가 미상, <책가도병풍>, 19세기-20세기, 건본채색, 206.5×45.3cm(×10), 국립고궁박물관



[도7] 전 낭세녕, <다보각경>, 18세기, 지본담채, 103×222.8cm, 플로리다 제임스 모리세의 소장

8) 강관식, (2018), 「영조대 후반 책가도(冊架圖) 수용의 세 가지 풍경」, 『미술사와 시각문화, 제22호, pp.38-91.

중국의 서가도, 다보각경과 조선후기의 책가도는 책가 안에 책을 비롯한 여러 기물들을 배치하는 점은 유사하나 과시를 위해 화려한 다보(多寶)로 책가를 꾸민 다보각경과는 달리 우리의 책가도는 책을 중심으로 학문적인 부분이 더 강조된 것으로, 발전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궁중에서 제작된 책가도의 원형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현재 고궁박물관에 있는 19세기 말의 책가도가 본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도6)(도7)

책가도는 민간 상류층에서 궁중 장식화로 수용되어 형식이 완성되고 다시 민간으로 퍼지고 저변화되면서 내용을 이루는 기물은 서책과 수입자기 등 고급품으로 대부분 유사하지만 시대의 변화나 그림 제작의 목적에 따라 화원과 화원, 화원과 민간 화가의 책가도 작품에서 도상의 표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도8)(도9)



[도8] 이형록, <책가도>, 19세기, 지본채색, 153×352cm, 국립중앙박물관



[도9] 작자미상, <책가도>, 198.8×393cm, 건본채색,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에서 책가도를 그린 대표적인 화가로는 장한종과 이형록을 꼽을 수 있다. 장한종과 이형록의 책거리는 몇몇 기물을 제외하고는 조선 상류층의 수입자기에 대한 선호와 고동 취미가 드러나는 청완품의 종류가 일치한다. 이는 화원들이 서로 모방하며 재구성하여 그렸을 가능성과, 18세기 화원 제작 책거리 그림의 양식이 20세기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한종의 그림에는 조선의 것으로 생각되는 기물들이 있으나 이형록의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이는 이형록이 활동하던 조선후기 중농정책으로 인한 상공업 진흥의 부진과 북벌론의 대두로 중국의 선진기술이 수입되지 못하면서 국내 기술이 쇠퇴하여, 되려 고급 사치품의 수입을 부추긴 당시의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⁹⁾

궁중 책가도는 짧은 시기 비교적 소량이 제작된 반면 민간 책가도는 20세기 전반까지 많이 양이 제작되었다. 민화 책가도는 화원의 것과 몇몇 문방품 등 부분적인 공통점이 있지만 책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궁중책가도 그림에는 없던 다양한 기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하여 그려진 시기의 생활상과 가치의 변화 등을 짐작할 수 있다. 화원의 책가도는 오랜 시간동안 구도적인 변화만이 두드러진 것에 비해 민간 책가도는 자유로운 표현과 형식으로 당시의 시대상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였다. 또한 책가가 사라지고 입체적인 공간표현 없이 물건들을 나열하는 식의 책가도가 점차 많이 제작되었고 이것이 추후 문인화풍의 기명절지화로 변모되었다고 본다. 이렇듯 저변화된 민간 책가도는 궁중화원의 그림을 본으로 반복적으로 생산, 변용하면서 새로운 것을 덧붙여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하였다.¹⁰⁾

본인이 작업하는 책가도는 궁중책가도를 본으로 하지만 민간의 책가도와 기물의 구성을 비슷하게 하고자 한다. 책가에 기물을 넣은 형식이지만 문방기물이 아닌 직접적인 생활용품과 기복적인 소재들로 자유롭게 구성할 것이다. 그러나 물상의 표현기법은 서양화법을 받아들여 변안한 18세기 궁중화법으로 하여, 최대한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던 궁중화원들의 책가도의 표현법을 따르고자 한다.

9) 신미란, (2010), 「책거리 그림과 器物研究」, 『미술사학연구』 제 268호, pp.169-194.

10) 이인숙, (2004), 「책거리의 제작층과 수용층」, 『실천민속학연구 6』 p.232.

늘 곁에 책과 문방품을 두고 학문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였던 것과 같이 본인이 작업할 책가도 또한 어떠한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 나누는 의미로써 받아들여질 바란다.

2.3.2 기명절지도

조선 후기 문인들에게 문방청완 문화가 성행하면서 각종 고동취미와 관련된 다양한 중국서적의 유입과 유통으로, 기물 수집에 대한 각종 지식의 습득이 가능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저서가 발간되기도 했다. 당시 북학파의 영향을 받아 중국 청조 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는데, 이때 청에서 유행하던 청공도 형식 중 기복적 성격을 가진 기명절지 형태의 박고도가 넘어와 우리나라에서는 기명절지도로 발전되었다.

기명절지도는 기명과 절지가 혼합된 형식의 그림이다. 기명은 오래된 진귀한 그릇인 고동기를 뜻하며, 절지는 화훼에서 한 부분을 잘라낸 가지를 의미한다. 현재 시각에서 보면 기명절지화는 정물화와 비슷하다.

기명절지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는 기명, 즉 고동기로 고동기는 고대 중국을 대표하는 유물로 생활용기나 제사용기로 사용되던 그릇이었다. 명·청시대 박고연구와 방(仿)고동기 제작으로 수집이 성행하면서 이러한 수집취미가 그대로 우리나라로 전해지며 문인들의 고동기 애호로 이어지고 기명절지도로 시각화 되었다.

따라서 기명절지도의 대부분은 고동기와 함께 절지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꽃꽂이한 방식으로 그려졌다. 앞선 문방책가도에서도 고동기가 많이 등장하였지만, 실제 기물보다는 모방하여 제작된 경우가 많아 그 종류가 한정적이고 표현이 도식화되었던 것에 비해 박고도에 더 영향을 받은 기명절지도는 고동기물의 종류가 다양하게 그려졌다. 초기의 기명절지도는 사대부들에게 문인화풍으로 간결하게 그려졌으나, 19세기 들어 점차 중인을 비롯해 일반 대중까지 확산되면서 기복적 성격이 더해지며 장식화로써 절지화와 주변 기물들이 길상적 의미를 가진 다양한 소재들로 나열되어 그려졌다.

우리나라에서 기명절지도를 가장 많이 그리고 한국적인 새로운 유형으로



[도10] 장승업, <기명절지도>, 38.3×233(cm), 견본채색, 국립중앙박물관

자리잡게 한 것은 장승업(張承業, 1843~1897)으로 알려져 있다. 장승업의 기명절지도는 다양한 화풍을 섭렵했던 화가의 기량처럼 화조 영모와 어해 등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했고, 한국적 길상의 의미를 담은 사물을 그려내어 중국의 것과 차별점을 두었다. 구도에 있어서도 이전의 기명절지도와는 다르게 화면에서 물리적인 크기가 아닌 작가가 의도하여 기물의 주종(主從)관계 구성을 하였는데, 장승업의 기명절지도는 화병과 고동기를 중심으로 크게 그리고 그 주변에 과일과 문방사우 등을 자유롭게 나열하는 식이었다.¹¹⁾(도10)

이러한 장승업의 구도와 화법은 이후 조선말을 대표하는 화가인 조석진, 안중식으로 이어져 정형화되고, 계속해서 후단으로 넘어가며 우리나라 근대화화의 토대가 되었다.

본인의 창작 작업의 소재는 찻잔과 찻주전자 등 티웨어 용품이 대부분으로 ‘기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어 깨달음의 이치를 표현하고자 절지화 소재들을 다수 사용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이 문인 화풍 기명절지도와 의미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점을 적극 수용하여 찻잔과 함께 화훼를 그려넣는 본인만의 기명절지도 작업으로 만들고자 한다.

Ⅲ. 청공도를 기반으로 한 창작작업

3.1 작품의 소재와 주제 전개 방식

11) 육혜림, (2013), 「장승업 회화에 나타난 器皿折枝畵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 47-48.

창작작업들은 앞서 설명한 청공도에서 ‘문방청공도, 문방도, 기명절지도’의 형식을 빌려 비단에 그려내는 전통 진채화 기법으로 진행하였고 ‘티타임’을 주제로 하여 이와 관련된 도구들을 주요 소재로 하였다.

본래 청공도는 문인화의 한 장르로 시작되었다. ‘문인화’는 문인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문인의 성질과 취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성리학적 이상을 표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청공도는 그중 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위해 심신 수양을 돕는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청완품들을 그려낸 것이다. 따라서 청공도의 시작은 그려진 청완품들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자기 수양을 하고자 함에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인화의 관점에서 청공도를 바라보며 시작되었고 본인의 청공도에서 심신 수양의 청공품은 티타임을 이루는 모든 소재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티타임 청공도’로 명명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업 내용의 전개는 ‘차-입문(入門), 차-맛(味), 차-잠기다(蘸)’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차의 세계로 가는 입문 과정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차를 마시며 느끼는 차 맛의 감상 혹은 다른 감상으로의 확산을 주제로 했다.

첫 번째, ‘차-입문’은 다양한 다구들을 기물로 하는 문방책가도의 형태로, 入門의 종류와 자격은 경계 없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두 번째, ‘차-맛’과 세 번째, ‘차-잠기다’는 찻잔과 함께 화훼물이 들어간 기명절지도 형식과 인물과 공간이 함께 그려지던 초기 청공도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두 작업에서는 차를 마시는 여러 상황들을 사진촬영하듯 정적인 장면으로 표현하였는데, 서양 인상주의와 같이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마다 그 시간의 결을 포착하고자 한 것이다. 순간들이 모여 시간의 흐름이 되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3.2 차-입문(入門)

‘차-입문’ 과정에서는 찻물이 등장하지 않고 차가 담기는 용기와 도구들을 문방청공도인 책가도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책가도는 책가에 책과 문방품들로 구성된 형태이나, 본인의 작업에서는 책 대신 티웨어 용품들로 바꾸어 구성하

였다.

차가 주는 향기와 맛은 차가 가진 고유한 맛도 있지만, 차를 대하는 자세와 다구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찻물을 담고 우려내기 위해 가장 적절한 형태로 만들어진 여러 찻잔과 차 도구들은 본 작업에서 중요한 소재들이다. 문인들이 같은 종류의 청완품들을 감상함에도 그에 따른 종류가 다양하고 평이 달랐듯이, 차를 담는 찻잔들도 상황마다 고르는 잔이 다르고, 마신 후의 감상도 달라진다. 문인들이 청완품을 수집하였듯 본인 작업에서의 청공품인 찻잔과 티웨어 용품들이 수집되어 진열된 책가도 형태로 표현하였다.



[도11] <Collect-Teacup>, 2019, 견본채색, 117×161cm(×2)

<collect-teacup>(도11)은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대중적인 잔부터, 티웨어 마니아들이 수집하는 고가의 명품 잔까지 여러 다구들의 모습을 각 칸이 분리되어있는 책가도의 형태로 표현하였는데, 티타임을 즐기는 것에는 어떠한 경계가 없음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찻잔은 실제 본인이 소장한 것과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유물, 또는 구매를 희망하며 사진으로 수집해 두었던 것들 중에서 다양하게 선별하였다. 이는 작은 관점에서는 본인의 과거와 현재, 오지 않은 미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잔의 크기와 채색은 실물과 가깝게 하였으며 그림이 걸렸을 때 감상자의 시선이 닿는 곳을 기준으로 배열하여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찻잔의 구성이 서양식 잔들이 많고 각 잔의 형태와 색감이 다양해서 책가는 사군자가 들어간 전통 자개장의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배경부는 검정과 회색 톤으로 채색하였다. 잔이 위치한 책장의 뒷면은 호분에 먹을 섞은 회색으로

배채 후 앞에서는 석청을 열게 바림하여 묘사가 많고 상대적으로 석채 사용이 많은 찻잔들이 더 돋보이도록 채색하였고 책가는 무게감이 있는 가구이기 때문에 흑색 안료 중에서도 질감이 느껴지는 송연을 사용했다. 맨 밑 하단에는 개인적으로 티타임에 도움이 되었던 책들을 넣어 문방청공도인 책가도의 형식임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찻잔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모든 잔은 차를 담는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모든 잔들은 티타임을 맞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잔의 크기와 깊이, 재질에 따라 차 맛은 변화된다. 따라서 모든 티타임은 같지 않으며, 이렇듯 수많은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책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



[도12] <Collect-Infuser>, 2019, 견본채색, 61.5×41.8cm

<collect-infuser>(도12)는 차 도구인 인퓨저를 수집 상자에 모아둔 모습이다. collect_teacup의 연장 작업으로 제작되었는데, 구성되는 인퓨저들의 일부는 <collect-teacup>의 잔과 세트로 사용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마찬가지로 수납장은 검은 자개장으로 표현하였고, 몇몇 인퓨저 중 강조하고 싶은 금속 소재들은 진채 기법 중 물감을 쌓아 올리는 ‘고분’ 기법과 함께 금박을 사용하여 실물과 같이 입체감을 주었다.

인퓨저는 차를 우려내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크기와 형태, 우려내는 시간에 따라 차의 맛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달라지는 차의 맛처럼 같은 상황에 직면해도 본인의 생각과 경험이 다르기에 각자 옳다고 여기는 방식을 택하고 그 결과 또

한 모두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또한 차 맛을 결정하는 인퓨저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한 사람이 지닌 경험과 삶의 방식도 여러이며 상황마다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도13] <다가도(茶架圖)>, 2012, 지본채색, 91×116.7cm



[도14] <티타임>, 2015, 건본채색, 35×42cm(×2)

<다가도(茶架圖)>(도13)와 <티타임>(도14)은 후기 책가도 양식에서 기복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 기물로 구성하였던 방식을 따라 티타임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모아 하나의 책가로 표현한 것이다. 책가의 모습은 고가구와 현대식 장식장으로 서로 반대되나 전통 책가도의 투시도법과 채색법을 따라 책가 옆면은 붉은색으로, 뒷배경은 푸른색 안료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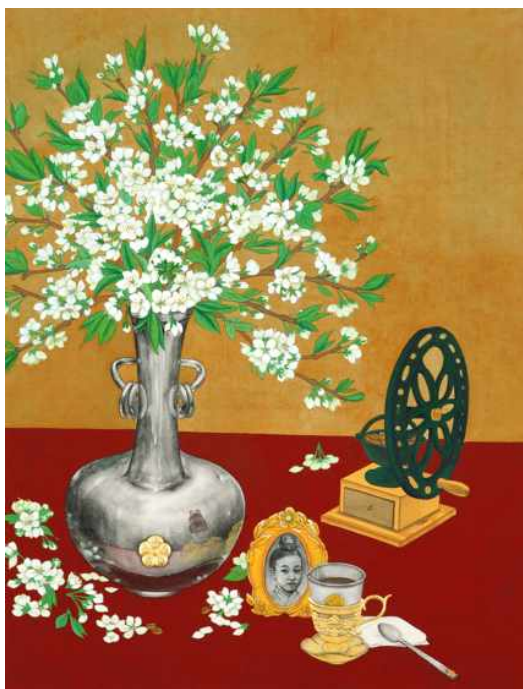
두 작업은 서재 안에서 여러 청완품들로 최대한 이상적인 주변환경을 구성하려 했던 문인들처럼, 개인적으로 만족도 높은 티타임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물건들을 추려 모아 그렸다. 다가도는 실제 본인의 본가의 찬장에 있는 차들을 그린 것이고, 티타임은 그려진 물건 중 화병과 수선화 등의 소재는 기존 책가도에 등장하는 기물의 상징과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두 그림을 포함하여 몇몇 작업의 공통소재는 향(香)과 관련된 것으로, 각기 아로마 향와 디퓨저로 그려냈다. 향 또한 힐링과 심신수양의 명상에서 빠지지 않는 물건으로 티타임의 여러 청공품 중 하나이다. 본인은 온전한 차의 향을 즐기기도 하지만, 종종 먼저 선향을 피우거나, 향초 등으로 티타임 전 공기중의 향을 전환하며 청공의 분위기를 조성하곤 하는데, 이어지는 티타임의 감상효과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경험을 담았다.

3.3 차-맛(味)

앞선 ‘차-입문’이 티타임을 위한 준비과정이었다면 두 번째, ‘차-맛’은 진행중인 티타임의 감상을 내용으로 한다. ‘차-맛’은 찻물의 미각적인 맛을 포함한 차를 마시는 상황과 그에 대한 감상 또한 ‘맛(味)’으로 표현하며, 찻잔과 함께 주변 기물들을 화훼물과 함께 담아내는 기명절지도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기명(器皿)은 본인의 작업에서는 찻잔으로 그려내고, 절지화(折枝花)는 기존 기명절지도에서 길상을 기원하며 그리던 화훼들의 의미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절지도’는 ‘화목의 전체가 아닌 한 가지나 그 일부분을 화면의 특정한 곳에서 나오게 그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화훼는 자유롭게 배치하여 구성하였다.



[도15] <가비-1931년의 봄>, 2014, 건본채색,
73×54cm

<가비-1931년의 봄>(도 15), <가비-책거리>(도16)와 <여름>(도17)은 기명절지와 문방품,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기물을 함께 그려냈다.

먼저 가비 시리즈는 가비(커피)를 좋아했다는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작업한 것으로 티타임의 감상자를 특정 인물로 설정하여 작업하였는데, 고종황제의 알려져있는 대외적인 삶이 아닌 사적인 삶의 순간을 티타임을 통해 찾아보고자 했던 시도였다.

기명을 중심으로 기물들이 배치되었던 장승업의 기명절지

도 형식을 따라 가비 시리즈는 실제 남아있는 대한제국기 커피용품 유물과 커피잔을 화면의 중심으로 두고 대한제국의 상징인 오얏꽃 문양이 담긴 기물들로 구성하여 ‘고종황제의 티타임’이라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기물을 정 가운데 두거나 더 크게 그렸던 장승업의 기명절지도와는 달리 본인의 작업에서는 크기의 변화보다는 채색으로 강조하였는데, 금박을 사용하여 비단의 뒤에서 붙이는 ‘배박’과, 앞에서 고분 후 금박을 붙여 입체감을 주는 방식으로 다른 기물들보다 시각적으로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비_1931년의 봄>에서 1931년은 고종의 고명딸인 덕혜옹주가 일본의 귀족과 결혼하면서 궁을 떠나간 해이다. 옹주를 위해 궁 안에 유치원까지 지으며 애정을 주었던 고종황제의 심경을 상상하며 작업했다. 옹주의 어린 적 사진과 함께 대한제국의 상징인 오얏꽃이 꽃꽂이 된 화병의 묘사와 커피잔의

문양을 박으로 채색하여 먼저 시선이 갈 수 있도록 강조했다. ‘가비_책거리’는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물건들로 구성된 기명절지가 포함된 문방청공도인데 같은 화면 하단에 오얏꽃 커피잔 세트와 쟁반을 채도 높은 색상과 배박법을 사용하고 나머지 기물들에는 염료 위주의 채색과 채도 낮은 색상을 사용하여 주제부와 구분했다.

<여름>은 본인이 상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작업한 그림이다. 기명 보다는 붉은 장미를 중심으로 한 절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여름날 본인이 자주 걷던 길에 장미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통해 느꼈던 본인만의 ‘여름’ 계절에 대한 감상을 담았다. 장미와 함께 화면의 중심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다는 뜻의 향수(鄉愁)와 동음을 가진 ‘향수(香水)’가 있고 맨 밑 오른쪽 하단의 파란 찻잔에는 두 번째 절지화인 안개꽃이 담겨있다. 거울에 비추어지는 어린 남매의 사진은 본인의 고향에서의 유년시절의 추억을 담고 있는데, 안개꽃은 이러한 어린시절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미는 ‘평안’이라는 길상적 의미도 있지만 현재는 여름을 대표하는 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사용하였다. 화병에 절지화(花)를 배치했던 가비시리즈와는 달리 여름은 상단 우측에서 장미가지가 뻗어나온 자유로운 형식으로 화훼물을 표현하였고, 중심 소재인만큼 가장 강한 색감을 사용했다. 장미가지 아래로는 문인들이 기명절지화에서 고동기를 바라보며 옛 고사를 떠올렸듯이, 여름을 기억하는 개인적인 추억의 사물들을 배치하여 기억을 소환하는 장치로 사용하였다.

<복옥(馥郁)>(도18)과 <다반향초(茶半香初)>(도19), <봄비>(도20)는 실제 차의 ‘맛(味)’을 그린 것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의 맛 중에서도 차 맛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향(香)’을 내용으로 하였다.

<복옥>과 <다반향초>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림인 세화(歲畵)로 작업한 것이다. 두 작업 모두 새해 첫 차를 마시는 감상을 절지화와 함께 표현했다. <복옥>은 ‘향이 그윽하다’는 말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목련화가 수반에서 피어나는 모습으로 향을 표현했고, <다반향초>는 ‘차가 반이 남았으나 향은 처음과 같다’는 의미로 첫 차의 향처럼 새해의 마음다짐을 잊지 않고 간직하기를 바라는 바람을 담았다. 꽃과 함께 찻물을 강조하기 위해 <복옥>에서는 금



[도16] <가비-책거리>, 2014, 견본채색, 73×56cm



[도17] <여름>, 2015, 견본채색, 70×58cm



[도18] <복옥(馥郁)>, 2017, 건본채색, 44×36cm

으로 찻물을 묘사하였고, <다반향초>에서는 찻잔 안의 찻물에 ‘레진’이라는 서양화의 합성수지 재료를 사용하여 입체적이고 투명한 물의 느낌을 주었다.

<봄비>는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본인은 비가 오거나 감정적인 해소가 필요할 때 향이 진한 커피를 많이 찾는 편인데, 이러한 경험을 창가에서 봄비를 맞는 커피잔의 모습으로 표

현했다. 주제부인 찻잔과 커피나무는 선명한 채도로 채색하고 배경부는 회색톤의 색상으로 비오는 날의 차분함을 주고자 했다. 빗물은 생명의 싹을 틔우는 물이다. 지금은 커피의 모습이지만 순환되어 다시 커피를 키워내는 밀거름이 될 빗물과의 만남을 꽃피운 커피나무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향은 가장 오래 기억되는 감각 중 하나이다. 본인도 티타임의 기억을 차에

서 말았던 향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비가 오는 날은 기압이 낮고 습도가 높아 평소보다 커피향과 맛을 두 배 이상 진하게 느끼기 때문에 판매량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본인을 포함하여 비오는 날 커피를 찾는 사람들은 오래 남아있는 향기의 맛을 기억하고 다시 경험하고자 커피숍을 찾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도19] <다반향초(茶半香初)>, 2018, 견본채색, 26×35.5cm

<선(仙)>(도21)과 <티타임I>(도22), <담(潭)>(도23)은 본인의 ‘티타임’의 행위에 대한 감상을 그려낸 것이다. 본인에게 티타임은 찻물과 내면을 대면시켜 자기수양을하는 청공의 시간이다. <선(仙)>과 <티타임I>은 이를 수선화로 표현했다. 수선화는 이전부터 신선과 그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은유적인 상징물 많이 그려져왔는데 이러한 상징의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티타임을 즐기는 시간만큼은 이치를 깨달은 존재인 신선과 같이 온전히 자유롭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두 그림 모두 찻잔 안에 수선화가 들어있고, 수선화의 꽃 부분은 금박으로 배박 후 묘사하여 강조했다.

두 그림은 수선화 주변을 산수가 둘러싼 형태를 하고 있다. 자연의 경관을 담은 산수화 또한 도교적 의미를 담은 청공품의 소재 중 하나였고 티타임 주제와도 일치하여 작업의 주된 소재로 사용하였다. <선(仙)>은 안견의 산수인 <몽유도원도>의 산수 부분으로, <티타임I>은 궁중장식화인 <일월오봉도>의 도상을 찻잔 문양으로 단순화시켜 표현했다. <일월오봉도>는 왕이 있는 곳에만 자리하던 그림으로 ‘천지인 합일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천지를 대표하는 해와 달, 다섯 산봉우리(오봉)와 바다 앞에, 인간 중 가장 존엄한 존재인 왕이 자리하면 천·지·인이 온전히 갖추어지면서 그 공



[도20] <보미>, 2020, 견본채색, 33×23.5cm

간은 우주가 된다. 본인의 그림에서는 해와 달, 오봉은 그대로 사용하고 찻물로써 바다를 대신했다. 티타임을 진행할 ‘나’가 자리하면 “차 한 잔에 우주”가 탄생하는 새로운 청공의 시간이 된다.

<담(潭)>은 수선화가 아닌 연꽃으로 그려내었는데, 연꽃은 고인 물과 진흙에서 피어나는 꽃으로 고결함을 의미한다. 또한 피어나기 직전의 꽃봉오리는 앞으로 피워낼 잠재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연봉과 그보다 작은 찻잔으로 구성하였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든 티타임은 가치 있고,

찻물을 담은 잔은 작지만 차를 마시는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는 그와 비례하지 않음을 말하고 싶었다.

앞선 세 작업과 위의 작업들 모두 기명 한 가지와 상징적인 절지 한 가지만으로 표현하였는데, 차와 그 맛을 의미하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차-맛’의 작업들은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청공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청완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 맛을 음미하고, 기억하며, 티타임 전체를 가치있게 바라보는 과정들은 앞서 말했듯이 삶의 흐름에서 매 순간을 가치있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3.4 차-잠기다(潛)

세 번째, ‘차-잠기다’는 초기 청공도 형식을 빌려 기물이 포함된 공간의 전체 모습을 담아내었다. 초기 청공도는 수집한 기물에 주목하기보다는 수집된 청공품들로 꾸며진 공간을 그려내어 이상적인 문인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거나, 그러한 생활을 향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는데, 본인 또한 이상적인 티타임을 즐기는 공간의 모습을 담아보고자 했다.

또한 전통 초상화에서 청완품



[도21] <선(仙)>, 2016, 견본채색, 25×17.6cm



[도22] <티타임 I>, 2016, 견본채색, 17.6×25cm

을 인물의 소품으로 그려내어 부분적이지만 청공도라 할 수 있는 모습의 작품들이 남아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청공도 형식의 초상화를 시도해보았다.



[도23] <담(潭)>, 2019, 견본채색 33.4×24.2cm

‘테라스 시리즈’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티타임의 장소를 상상하여 그려내었다. ‘테라스’는 옥외에 위치하고 있지만 거실이나 식당 등 주된 공간에서 연장되는 야외 공간으로, 실내에서 곧바로 실외로의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가정이나 회사 등에서 휴식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곤 한다. 바쁜 일상의 틈에서 잠시 빠져나와 작은 티타임을 갖는 모습과 같다고 여겨져 청공의 장소로 선정하였다.

<테라스Ⅱ>, <테라스Ⅲ>은 겸재가 그린 <독서여가>와 <책재제시>를 변형하여 작업하였다. 겸재의 두 그림 모두 문인의 생활공간을 담은 청공도로 조선시대 테라스라 할 수 있는 사랑채와 연결되는 마루 공간이 등장한다. 해당 그림들에서는 주인공과 함께 책가와 문방이 주요 기물로 등장하는데, 본인의 테라스시리즈에서는 다른 작업들에 등장하는 티타임에 관한 다구들로 테라스 공간의 청공기물을 구성하고, 본래 그림과는 달리 주인공 인물을 제하고 진행중인 티타임을 상징하는 찻물이 있는 찻잔을 두었다. 인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그림을 감상하는 이들이 간접적으로



[도24] <테라스Ⅱ>, 2019, 건본채색,
30.5×24.5cm

나마 티타임을 위한 청공의 공간에 잠시 이입하여 해당 순간을 경험했으면 하는 목적이다.

<여행> (도26)은 청공의 공간을 보여준 테라스 시리즈의 연장 작업으로, 테라스 시리즈처럼 공간의 기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테라스에서 사유하는 청공의 시간을 풍경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청공의 공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테라스와의 연결 장치로 붉은색 커튼을 사용하였다. 붉은색 커튼은 연극이나 공연에서 하나의 막을 열고 닫을 때 사용되는 상징소재이다. 청공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붉은색

커튼을 선택하였고, 채색 또한 벨벳으로 되어 무거운 장막처럼 붉은색 무기안료인 주사로 칠하였다.

앞의 <봄비>와 <여행>에는 화면에 푸른 돌이 공통된 소재로 등장한다. 이는 연구자 본인의 태몽에서 온 사적인 소재인데, 본인의 태몽은 맑은 물가에서 손금이 보일 정도로 푸르고 투명한 돌을 주웠다는 내용이다. 물을 소재로 하는 연구작을 진행하면서 본인 삶의 첫 시작도 물에서 왔다는 감상이 들어 몇몇의 작업에 소재로 사용하였다.

<오후 3시의 초상> (도27)은 전통 초상화의 청공도 부분을 본인의 작업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조선시대 초상화 중에서는 주인공과 함께 서안과 문방기물 등의 소품을 그려내어 주인공의 높은 학식과 안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적으로 청공도의 형식이 포함된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본인의 작업에서는 앞선 그림들처럼 직접적인 인물은 그려내지 않고, 주제물인 청



[도25] <테라스Ⅲ>, 2020, 건본채색, 24.5×33cm

공품 ‘찾잔’을 얼굴 대신 넣어 티타임을 주인공으로 한 초상화로 표현하였다.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였기 때문에 초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몸체는 사람의 형상으로 하여 정면을 응시하는 정적인 자세로 표현하였고, 의상 또한 의관을 갖추었던 옛 초상화를 따라 정장으로 하였다. 티타임의 소재에 맞추어 차나무를 소품으로 함께 그려넣었는데, 주제부인 찾잔의 문양과 차나무꽃의 수술 부분은 금으로 채색하였다.

차-잠기다는 초기 청공도가 청공 생활을 온전히 향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티타임의 공간에서 티타임 청공이 삶에 자연스럽게 깊숙이 자리한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도26] <여행>, 2019, 견본채색, 34×41.8cm



[도27] <오후 3시의 초상>, 2019, 견본채색,
76.5×48cm

IV. 결론

일반적으로 삶을 ‘흘러간다’고 표현한다. 어디서 왔는지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지만 수많은 물줄기가 흘러 한 곳에 모이는 것처럼 모든 순간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것을 뜻함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물을 주제로 한 본인의 청공도 연구작업이 시작되었고 물이 주체가 되는 행위인 ‘티타임’을 주된 소재로 하여 연구작들이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청공도의 발원과 발전 양상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를 토대로 크게 청공도, 문방청공도, 기명절지도의 형식으로 나누어 비단 바탕재 위에 전통 진채화 기법으로 연구작들을 진행하였다. 연구작들은 기존 청공도 형식을 따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향에 맞추어 변형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달음과 심신수양에 대한 고민은 오래 전부터 지칭만 변화했을 뿐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고, 기존 청공도의 소재와 본 연구작의 소재가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청공품들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의미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옛 청공문화에서 단순한 수집욕을 넘어서 집착이라고 부를 정도의 수집을 하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이치가 무엇일지 앞으로의 작업을 위해 더 자세한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청공’은 오늘날에는 ‘수집과 감상’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청공품을 모아 그것들로 공간을 꾸미고, 같은 취미를 가진 이들이 모여 아회를 여는 행위들은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는 티타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시간을 수집하고 감상하는 것을 청공의 소재로 삼아 감상자들에게 소소한 티타임을 통하여 삶의 작은 순간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따라서 매사에 진심을 다 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티타임에 대한 감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작업으로 집중되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본 연구 이후에 추가적인 연구작업을 통하여 효과적인 표현법을 익혀 이후 작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관식, (2018), 「영조대 후반 책가도(冊架圖) 수용의 세 가지 풍경」, 『미술사와 시각문화 제22호』, pp.38-91.
- 문영란, (2013), 「조선시대 화훼문화와 기명절지화에 관한 연구」, 『한국화에 디자인학 연구』 제 28집, pp.109-127.
- 손정희, (2013), 「홍경모의 『산거십경기』와 19세기 청공(淸供)의 문화적 함의」, 『한국문화』 61, pp.221-247.
- 송희경, (2010), 「사랑채가 있는 풍경 - 조선 후기 서재문화와 서재의 시각화」, 『동양고전연구』 제 38호, pp.295-329.
- 신미란, (2010), 「책거리 그림과 器物研究」, 『미술사학연구』 제 268호, pp.169-194.
- 유가희, (2017), 「朝鮮 後期 회화에 나타나는 古銅器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재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순영, (2014), 「孫克弘의 淸玩圖 : 명 말기 취미와 물질의 세계」, 『미술사학보 제 42집』, 미술사학연구회, pp.143-171.
- 육혜림, (2013), 「장승업 회화에 나타난 器皿折枝畵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경화, (2011). 「姜世晃의 <淸供圖>와 文房淸玩」, 『미술사학연구 제271호』, 미술사학연구회, pp.113-144.
- 이인숙, (2004), 「책거리의 제작층과 수용층」, 『실천민속학연구 6』, 실천민속학회, pp.169-237.
- 홍선표, (1987), 「조석진의 『기명절지도』」, 『현대미술관회뉴스』 44호.

ABSTRACT

Utensils and Antiquities for Teatime

Kim, Yu-Jin

Master of Fine Art

Dep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While exploring beings that are in close contact with our lives but constantly changing, I came to pay attention to 'water'. Water harmonizes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and exists in various forms. Water flows without form or purpose, but it circulates endlessly, forms perforation and sea, and becomes an essential entity in a life with life.

This point of water was considered to be the same as the various experiences we experience in our lives coming together to achieve "who I am," so I wanted to try water-themed work.

Among the numerous aspects of water, I would like to work on the theme of Tea. Because water is one of the rituals to become a direct subject, not indirectly, it mainly deals with the contents of the tea party, that is, 'tea time'.

The research work is to be conducted in the form of 'Cheong-gong painting' (Painting of Utensils and Antiquities for mental training ; Cheong-sang painting, Cheong-wan painting), one of the major genres. First, we look at the background of the times that are the origin of Cheong-gong(Cheongwan : Pure Enjoyment of Scholars' Accoutrements) painting Island, and examine the contents of the "Mungbang-cheonggong

painting Island, Munbang(A scholar's Stationery) painting Island, and Gimyeong-jeolji painting(paintings of precious vessels with flowering plants and/or fruits) Island" developed in Cheong-gong painting Island, and the differences and meanings of the figures between the central materials.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reflect it in my work and work.

Cheong-gong painting Island was originated from the literary culture of the prestigious noblemen and is a painting of various objects collected and completed by writers. The materials were differentiated from the objects that were completely enshrined along with the scenery of the study, and according to the objects and forms drawn, they were divided into Munbang-cheonggong painting Island, Munbang painting Island, and Gimyeong-jeolji painting Island. Cheong-gong painting Island has something in common for the purpose of cultivating the mind and body through blue crafts, as it says by looking at the bookshelf, although the objects on it have different meanings.

The objects painted on Cheong-gong painting Island look like symbols of collection walls and greed, but originally from literary paintings, and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comforting Cheong-wan products is to cultivate the spirit through them. I could pay attention to this part, appreciate Cheong-gong painting Island, and use it in creative work. In addition, while looking at the works of various forms of Cheong-gong painting Island, Munbang painting Island and Gimyeong-jeolji painting Island, I thought that what I could show the viewers could vary depending on how various objects were combined and arranged. In my work, I would like to say that objects containing the meaning of purpose, such as the finished objects of writers, gathered several moments to become the present appearance, and that even small moments are precious.

【KEYWORD】 Cheong-gong painting, Munbang-Cheongwan,
Gimyeong-jeolji painting , Munbang painting, Teatime.